

같이 보기  
: 소통N공감



필요한 만큼 일한다

## N잡러와 깃 경제

칼퇴를 하는 날. 쇼핑 플랫폼의 라이더 앱에 접속해 회사 주변의 라이더 일감을 검색해 본다. 집 방향으로 3건, 퇴근길에 배달 3건을 소화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일하며 소소하게 수입을 올린다. 바로 깃 경제 시대에 N잡러로 살아가는 방식이다.

글 편집실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형태로 일하기**



긱(Gig)은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에서 유래한 용어로 당시 재즈클럽에서 단기적으로 섭외한 연주자를 긱이라고 불렀다. 이후 긱은 일시적인 일을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 여기서 파생된 긱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혹은 임시로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 즉, 긱 워커(긱 노동자)에게 일을 맡기는 형태를 일컫는다. 긱 경제가 점차 보편화된 데에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이 큰 역할을 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여러 서비스나 재화가 모바일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제공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 시스템이 발달했는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거래비용이 줄고, 특히 가격 결정권이 수요자에게 넘어가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잘 빠르게 대응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해진 배달의 민족, 카카오택시, 에어비앤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정규직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경향이 이들 플랫폼의 주된 노동 형태라는 것이다. 결국 긱 경제는 기존 노동시장과 달리 수요에 따라 노동자와 단기적으로 혹은 임시로 계약을 맺고 사람을 고용한다.

**다양한 도전이 가능한 긱 경제와 N잡러**



긱 경제는 수요와 니즈가 유동적이고 단기적으로 변하는 특징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노동자와 단기적으로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긱 경제에

종사하는 긱 워커들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개인이 수입을 올리는 형태로 진행된다. 초기에는 음식 배달, 각종 심부름, 대리운전, 현장 방문이나 포장, 배송 등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프로그램 개발, 웹 분석, 전문 컨설팅 서비스, 미스터리 쇼퍼, 법률 상담 등 분야나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얼핏 보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프리터족 혹은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슷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계약직을 희망하고 전문직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 가지 직업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닌, 두 개 이상의 직장에 고용되었거나 직장을 다니며 별도의 사업 등을 병행하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N잡러’들의 비율이 제법 된다. 2021년 4월 한 취업 플랫폼에서 성인 남녀 2,1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직장인 중 55.7%가 소위 말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직장인 2명 가운데 1명이 N잡러인 셈이다. N잡러의 특징은 본업이 따로 있고 겸업이나 부업의 개념으로 긱 워커로 활동한다. 즉,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일을 한다. 이들은 물론 수입을 높이기 위함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함 또는 자신의 가능성을 테스트 해 보기 위해 또는 새로운 꿈을 찾기 위한 이유로도 N잡러의 길을 택하기 때문에 이들이 유입된 긱 경제는 보다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계속 발달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긱 경제와 긱 워커, N잡러로 인한 단점도 있다. 정규직의 비중이 낮아져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고 소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요청하는 형태라서 노동비용의 감축과 단순노동 혹은 비숙련 노동으로 인해 최저 임금 혜택이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분야가 넓어지고 보다 전문적인 노동 인구가 긱 경제 시스템에 유입되어 양질의 노동이 늘어나고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